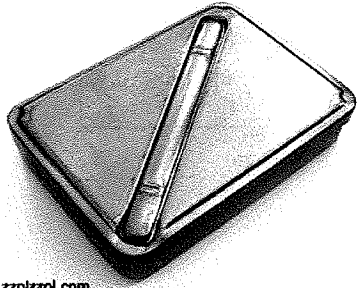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마음

(MBC텔레비전의 전파전문록에 나왔던 어린이들의 문제와 답입니다)

- 1.이건 작지만 들어있을건 다들어 있어요..... 씨앗
- 2.아빠가 출장을 가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걱정
- 3.이건 아래랑 위랑 바뀌면 안 돼요..... 인어공주
- 4.아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예요. 엄마가 제일 작아요..... 방귀
- 5.여기 있는 글자는 읽기가 힘들어요..... 도장
- 6.누가 너무 쉬 마려워서 엘리베이터에 쉬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해요... 반상회
- 7.엄마가 하면 동생이 안 보여요..... 어부바
- 8.어른들이 어린이가 다 갈 때까지 보고 있어요..... 시골
- 9.내 양말에 빵구가 났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가져요..... 콩닥콩닥
- 10.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손님
- 11.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새치기
- 12.네모 안에 사람이 있어요..... 신호등
- 13.이건 되게 작는데 여기 사는 주인은 되게 커요..... 요술램프
- 14.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세뱃돈
- 15.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노래방
- 16.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추억
- 17.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콧구멍
- 18.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만세
- 19.이게 있으면 물건을 못 버려요..... 정
- 20.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 화나면 혼자서도 해요..... 팔짱
- 21.어른들은 애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싫어해요..... 풍선
- 22.어린이들은 학교에서 하고 어른들은 놀면서 이걸 해요..... 탬버린
- 23.엄마 앞에 오면 엄마가 막 손을 흔들어요..... 회전목마
- 24.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변신
- 25.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고
- 26.엄마는 자기 걸 안 쓰고 내 걸 많이 써요..... 이름
- 27.차에 친구가 안 타면 안 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정
- 28.내가 주인공이 되면 창피해요..... 낙서
- 29.이 사람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절대 옷이 안 젖어요..... 산신령
- 30.이걸 할 땐 진짜 가까워도 차 타고 가야 돼요..... 출동

◀그때 그랬지▶ 양은 도시락뚜껍의 젓가락
밥 위에 대각선으로 놓은 젓가락을 집어들면 묻어있던 몇 개의 밥알, 입으로 떼어먹는 것을 시작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었죠. 아이디어가 좋았던 도시락 뚜껍의 가로지른 젓가락 넣는 곳. 덕분에 밥알 묻지 않은 젓가락을 집을 수 있었지만 눌러담은 도시락을 열면 대각선으로 자국이 눌러져 있어 그 만큼 밥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뚜껍 열면 가끔씩 계란후라이가 있던 도시락, 그때의 친구들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0월 3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꿀피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백이 도대체 누구야>라는 책에서 저자 다니엘 명의 간증입니다. 1996년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취업 준비중이던 저자는 당시 미국 최상위 회계법인 6개(빅6) 중에서 4곳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그 중에는 1위 회사로 모든 회계학 전공자들의 꿈인 '아서 앤더슨'도 있었다.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면접 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일성수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들은 연봉은 많지만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고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저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빅6 중 6위인 '쿠퍼스 & 라이브랜드'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면접 책임자는 "자네를 우리 회사에 오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면 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못하겠습니다"는 대답에 책임자는 흔쾌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정신이냐?"며 별난 사람 취급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더니 아서 앤더슨은 2001년 '앤론'이라는 회사의 회계부정 사건에 휘말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반면 저자가 다닌 회사는 98년 빅5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와 합병하며 일약 넘버1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나는 꿀피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꿀피를 1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히 11:6)

◀좋은 사람 되는 요령▶
깜박이도 안 키고 끼여 들어와도 욕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욕이 나오려하면 다음주까지 기다렸다 한다.
생각이 안 나면 잊어버리고 만다
어차피 우린 깜빡깜빡하는데 전문가들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울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7장	다 같이
*성시교독	10 (시 27)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102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노은숙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22:1-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 이름의 능력(1) 여호와 아래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39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월의 예배위원◆

◆10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3	노은숙	한정옥	7구역	3	구역예배(8)
10	박일영	허미숙	8구역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17	이광희	최현철	9구역	17	식사친교주일 은 십자가성가대(학생부)
24	이규임	강은미	10구역	24	Labour Day(25)
31	이재영	권영희	11구역	31	이삭줍기주일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 나와 나이는 비슷한데 어찌 속이 그리도 깊은지 내 속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얘기를 듣고도 내가 발끈하면 조리있게 천천히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 내 아는 것 없음에 무지함 감추려 침묵하고 있으면 나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같이 침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
10월은 좀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1.교우소식

<수술 후 퇴원> 이금선 집사.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금요정기구역예배 <금요일 저녁 7:30>

*구역식구들의 가정과 형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구역모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아진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복 주시기도 좋아하십니다. 구역식구들이 복에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정기당회. 친교후장년부실

4.수요일예배

*레위기와 함께하는 수요일의 예배, 마음 담은 찬양과 짧지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로 은혜로운 영적성장의 시간입니다

5. "토요일 화장실 청소 자원봉사" 를 기다립니다(10월-12월)

◀착한 시인들▶

꼭꼭 눌러쓴 어머니의 편지

박형준

냉장고 보약해다 노릇으니
넌비다 뜻뜻하게 뒤먹어라
형준아 너며살리야 이십세가 넘머지면
철도 다러가는데 굶구 잠이나자고
집안 엉망이고 더러우워
볼수가 업구나 어머니는 올때마다
실망이 되는구나 멋시든 생활력도
강하고 악기야한다말리지 썩키 버리고
그리서 업는 살림이 엇딴게 살릴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가슴조리면서도 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심장이 상하여 울울짐나서
견딜수가 업서 제발 어머니 말좀 드러라

어머니에게 자식은 한평생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기 삶을 찾아 외지로 나간 자식이 있어도 어머니는 결코 떠나 보내지 않았습디다. 한순간도 어머니의 마음에 담고서는 놓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가끔씩 만나러 가는 날이 있지만 어머니들에겐 그날은 가슴에서 잠시 꺼내 놓고 한시름 잊는 날입니다.

자식들에게 가슴 다 내어주고는 그 자리에 암세포로 채운 어느 어머니의 가슴에서 가장 거룩하고 숭고함을 보았습디다